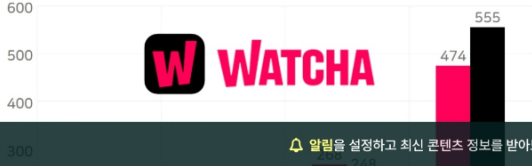


콘텐츠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콘텐츠 제작비는 100억 원에 육박했다.

콘텐츠 투자와 함께 관련 상각 비용도 불어났다. 지난해 왓차가 보유한 무형자산 중 판권에서만 457억원 상당의 상각이 발생했다. 보유한 콘텐츠의 상품성 하락 등에 따른 결과다. 지금까지 판권 확보로 투입한 894억원 중 749억원 상당이 상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왓차는 콘텐츠 확보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일시적 지출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왓차 관계자는 "일반적인 콘텐츠 제작비 추급 비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의 영향"이라며 "하지만 향후 재무건전성 강화 측면에서 지난해 콘텐츠 비용을 미리 선반영해 이전 대비 영업손실이 더 높게 잡힌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최신기사

- MBK파트너스, (위)영풍 반격 듣는다  
주로 참여

MBK  
PARTNERS

- 하이브IM, B2C 전시관 참가...차기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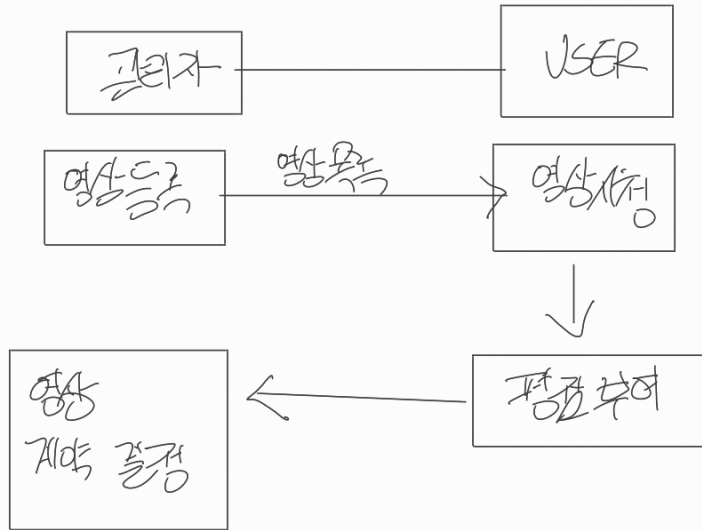
HYBE

- 두 달 남은 게임축제 '20주년'...역대  
모 확정

콘텐츠 제작 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영상계약을 해 USER가 낮은 평점을 주면 계약을 끊는 식으로  
USER의 데이터 활용을 높여 서비스 품질과 수익 비용 절감을 꾀함

업무분장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

